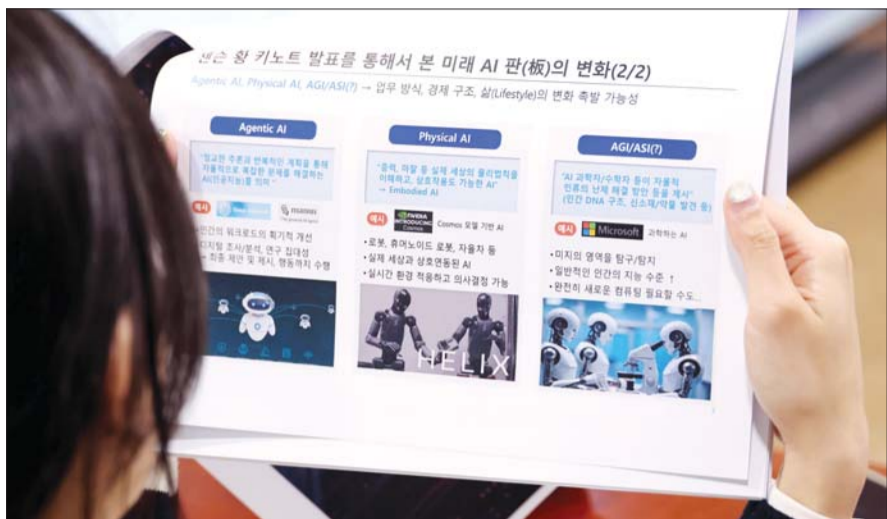


AI 직접 쓰고 역량강화하고... 전 세대에서 ChatGPT '열풍'

1020세대, 생성형 AI 활용 '집중' 30대 이상, 교육프로그램 등 참여 AI 관련 도서 독자 78% '30~50대' 기업 "기술·경험 갖춘 인재 선호" 고용부-구글, AI 인재 양성 박차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한 편의점. 카운터에 앉은 편의점 사장님인 김은재(57)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중 하나인 챗GPT에게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다. '인기 있는 편의점 간식'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 필요한 것들' 등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이었다. 김씨는 기자에게 "요즘은 챗GPT 쓰지 않는 사람이 없다.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 또한 GPT 삼매경"이라며 "편의점 운영부터 평소 고민까지 모두 챗GPT에게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관한 관심이 1020세대를 넘어 5060세대에까지 이르고 있다. AI가 일상부터 생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이 쏟아지면서다.



지난 GTC 당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가 말한 AI의 발전에 관한 키노트를 살펴보는 사람의 모습. AI에 관한 관심이 전연령대를 초월해 크게 늘고 있다. /뉴시스

2일 업계에 따르면 AI에 관한 관심이 전세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1020세대는 네이티브 AI(Native AI) 세대로서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보는 데에 집중하는 한편, 30대 이상 세대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책을 구입해 보는 등 역량 강화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활용 및 교육 열풍은 생성형 AI

기술의 일상화와 더불어,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상 변화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엑세스파트너십과 AWS의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의사결정권자의 92%가 2028년까지 AI 관련 솔루션을 이용할 예정이며 93%는 5년 내 생성형 AI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3%는 AI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지만 75%는 필요 인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해당 설문조사와 같이 'AI 인재를 필요로 한다'라는 기업 수요는 꾸준히 다양한 설문조사와 통계에서 나타난다.

이러한배경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성형 AI 활용은 여느 나라보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오픈서베이가 공개한 'AI 검색 트렌드 리포트 2025'에 따르면 국내 응답자의 70.5%가 챗GPT를 알고 있으며 이 중 50.9%는 실제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경험률 33.8%), 일본(25.2%)과 비교해 각각 17%p, 25%p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한국의 50대 가운데 챗GPT 인지율은 33.2%, 이용 경험률은 17.7%에 달했다. 10대의 인지율(70.3%)과 경험률(59.7%)은 가장 높았다.

전연령대에 걸친 AI에 대한 관심은 도서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AI 관련 도서 독자의 78.5%는 30~50대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30대가 23.6%, 40대가

30.5%, 50대가 24.2%였다. 60세 이상 독자 또한 전체의 11.9%를 차지했다. 독자 성별 구성비는 남성 독자가 56.3%, 여성 독자가 43.7%를 기록했다.

AI 도서 독자는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층으로 수요가 확산하는 추세다. 여기에 더해 AI 관련 도서 베스트셀러는 실용서적과 AI에 관한 인문·사회학적 고찰이 담긴 교양서적이 비등한 비율로 나타났다.

열린 관심 속에서 정부도 AI 인재 양성 및 교육을 위해 두팔을 걷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구글코리아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역량이 취업 기본기가 되어가고 있어 구글코리아와의 업무협약의 의미가 크다"며 "구글의 AI 전문성과 고용부의 행정 전문성이 시너지를 내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U+ - 서울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 성과

자체 고객피해방지분석시스템 가동 경찰, 악성 앱 피해 예상되는 시민 방문 '악성 앱 의심 경보' 서비스 제공 계획

LG유플러스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악성 앱 설치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을 직접 방문해 금전 피해를 막았다고 2일 밝혔다.

현재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앱 제어 서버를 포착하기 위해 자체 고객피해방지분석시스템을 가동해 실시간 탐지를 진행하고 있다.

탐지 결과를 주기적으로 전달받는 경찰은 금융보안원 등과 검증 및 분석을 거쳐 실제 악성 앱 설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을 방문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노립대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 내 전화·문자 등의 기능이 '가로채기'를 당하므로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다. LG유플러스도 경찰에 단순히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업계 최초로 지난 2월 말 서울경찰청의 현장 방문에 시범 동행했다. 새로운 범죄 수법을 파악해 실질적으로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는 이유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등에서 진행된 지난 현장 방문에서 악성 앱을 검출·삭제하고 고객의 피해를 막는 성과를 거뒀다.

LG유플러스는 현장 방문을 통해 최근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될 것이라는 안내에 피해자가 당황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은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원격 제어 앱'을 설치시키고 악성 앱을 심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을 장악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112, 1301(경찰), 1332(금융감독원) 등에 직접 신고할 것을 유도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LG유플

러스의 고객피해방지시스템이 악성 앱 활동을 포착하면 경찰은 유관기관과의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LG유플러스와 피해 예상자를 방문하는 공조가 이뤄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 2월 말 진행된 LG유플러스와 서울경찰청의 현장 방문에서도 이같은 범죄 수법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현장 방문 대상 고객의 스마트폰은 카드 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몰래 설치한 악성 앱 때문에 모든 전화와 문자가 탈취되고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쉽게 탈취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위험 상황을 알리는 '악성 앱 의심 경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LG유플러스와 서울경찰청은 첫 현장 방문 성과에 기반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KT, 1인가구 맞춤 '무선결합' 혜택 강화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 개편

KT는 1인 가구 혜택 확대를 위해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을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무선 혜택 중심이다. 모바일 요금제 구간별 정액 할인 신설, 모바일 결합 회선수 10회선 확대, 싱글인 터넷베이직의 무선 결합 적용 등이 특징이다.

앞서 KT는 지난달 분가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넷·TV 결합 회선을 5회선까지 늘리고 할인 혜택을 강화한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유무선을 아우르는 1인 가구 맞춤형 상품군이 완성됐다.

새롭게 신설된 정액 할인은 모바일 요금제 구간 월 3만7000원, 6만1000원, 7만7000원에 따라 각 3000원, 5000원, 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할인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6만1000원 요금제



KT가 1인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을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모델이 KT의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을 소개하고 있다. /KT

를 이용하면 월 5000원 할인을 받아 24개월 기준 총 12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무선 결합 최대 회선수가 기존 7회선에서 10회선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싱글인터넷 베이직 상품에도 모바일 결합 혜택을 추가했다. 인터넷 요금 월 5500원 할인과 함께 모바일 결합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김서현 기자

쿠광플레이, F1 H 그랑프리 첫 현장 리포팅

'풀 패키지' 중계로 선봬

쿠광플레이는 4일부터 2025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이하 'F1') 일본 그랑프리 올 시즌 첫 현장 리포팅과 함께 '풀 패키지' 중계로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쿠광플레이는 이달 4일 시작하는 프랙티스 1·2를 비롯해 5일 오전 11시 15분 프랙티스 3, 오후 2시 20분 퀄리파잉과, 6일 오후 1시 20분 레이스까지 일본 그랑프리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중계한다. 윤재수 해설위원과 안형진 캐스터가

프리뷰쇼 진행을 맡아 특별 분석 내용과 관전 포인트를 설명해 줄 예정이다.

쿠광플레이는 일본을 시작으로 2025 시즌 총 5개 그랑프리를 방문한다. 오는 7월엔 페라리 이적 첫 시즌으로 화제의 중심인 루이스 해밀턴의 홈이자, 'F1의 성지' 실버스톤 서킷에서 개최되는 영국 그랑프리도 최초 현장 생중계로 선보인다.

올 10월 마리아 베이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하는 싱가포르 그랑프리에도 3년 연속으로 중계진이 모두 출동한다. 바르셀로나 서킷과 이별을 앞둔 5월 스



쿠광플레이가 4일 시작하는 일본 그랑프리에서 올 시즌 첫 현장 리포팅을 진행한다. /쿠광플레이

페인 그랑프리 시즌 최종전인 12월 아부다비 그랑프리는 현장 리포팅으로 만나볼 수 있다. /김현정 기자 hjk10

'국내 최강 정신건강 포트폴리오 구축'

넛지헬스케어의 자회사 다인은 휴마트컴퍼니의 국내 1위 멘탈 헬스케어 플랫폼 '트로스트'를 인수했다고 2일 밝혔다.

박정신 넛지헬스케어 대표는 "이번 인수를 통해 작년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전문 기업 다인에 이어 트로스트까지 확보하며 국내 최강 정신건강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B2B(기업 간 거래)·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통합 멘탈케어 플랫폼 '넛지 EAP'을 출범,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케어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심리상담 애플리케이션 중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트로스트는 ▲ 가벼운 우울감이나 불안을 해소하려는 사용자 ▲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 ▲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트로스트는 비대면 심리상담을 비롯해 셀프케어 프로그램, AI 챗봇, 정신과·약물 정보 전달 등 여러 정신건강 관리 솔루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한다. 업계 최초로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을 도입해 보다 효율적인 멘탈케어 가능해졌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이번 인수로 넛지헬스케어의 건강관리 앱 '캐시워크'에도 트로스트 서비스가 연동됐다. /김현정 기자